

6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순원들과 한 절씩 돌아가며 읽어봅시다.

「들어가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사랑은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를 ‘자기 유익’이라고 번역했지만, ‘자기 방식’ 혹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ESV 영어 버전은 이 구절을 “It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사랑은 자기 방식을 주장하지 않으며)로 번역했고, NLT는 “It does not demand its own way” (사랑은 자기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종합하자면, 사랑은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것을 먼저 추구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 (Narcissism)」

존 스토틀은 『제자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극복해야 할 세상의 풍조 중 하나로 나르시즘, 곧 “지나친 자기 사랑”을 지적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는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물속으로 몸을 기울이다가 익사한다. 이로부터 ‘나르시즘’은 ‘지나친 자기에’나 ‘자아’에 도취된 상태를 의미하게 되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중심에 두며, 나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를 비우시고 (made himself nothing), 오히려 종이 되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것을 먼저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 자기 유익을 넘어서는 사랑」

바울의 전도 전략은 자유함과 유연함이었습니다. 지난 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율법에 따른 먹는 문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로운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1) 자기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고전 10:23-24, 표준새번역).

2) 나로 인해 성도들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나의 형제자매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면, 나는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고전 8:13, 표준새번역).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바울에게 사랑이란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더 챙겨주며, 누구도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서로 유산 다툼을 벌이는데 영광 받을 부모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웃에게 손가락질만 받겠죠. 그때 부모는 수치를 경험할 것입니다. 반면에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도 형제들이 우애 있게 지내면 그 부모가 이웃에게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그래도 자식들 하나는 제대로 키웠다고 말이죠. 동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며 인정도 받을 겁니다. 그때 부모는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자녀들이 연대하여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와 직결됩니다. [송용원, 『하나님의 공공선』]

1. 자신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아름다운 기억을 나눠 봅시다.
2.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영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3.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한 나의 “자유 내려놓기”를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묵회 철학: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바울은 목양자로서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던 인생의 철학이자 삶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삶의 모본이 되기 위해 그가 마음 깊이 붙들었던 말씀은, 복음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숨겨진 말씀이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35).

Give & Take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내어 주시기만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받는 것을 더 기뻐하겠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신념 하나로, 거리낌 없이 살았다고 교회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입니다.

「생각하기」

영화 <세븐 파운즈>에는 한 사람에게 각각 장기를 기증받은 일곱 명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당신도 받았습니까?” “네, 저도 받았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그 사람에게 받았군요.”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그들은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유대감을 나눕니다. 같은 사람으로 인해 살아났다는 공통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나와 너는 다르지만, 기증자에게 생명을 선물 받았다는 점에서 나와 너는 다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증자 한 사람의 생명이 일곱 사람 모두에게 공통으로 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일곱 사람에게 일종의 공통의 무대(common ground)가 생겨납니다. 그 자리에서 일곱 사람은 서로를 적대시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개성의 차이를 강조할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한 희생적 사랑을 공통으로 받았기에 서로 간에 그 사랑을 기꺼이 재현할 책임 윤리가 있습니다. [송용원, 『하나님의 공공선』]

십자가는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죽어가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마치 한 기증자의 생명이 여러 사람 안에 공통으로 흐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믿는 자들 안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삶과 피를 함께 대하며, “나도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 사랑 앞에서는 서로를 미워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끝없이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나눠 가진 생명이라는 압도적인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희생적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있기에, 이제 우리도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며 그 사랑을 재현하는 삶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적용하기」

1. 무엇보다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교재와 나눔을 통해 깨닫게 된 것 중, 나의 가정에 적용할 한 가지 다짐을 순원들과 나눠봅시다.
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받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생각해 보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